

“융합의 시대, 창조적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이석환 (국민대 교수)

○ 본 연구논문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한 복판을 살아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융합을 주제로 창조적 거버넌스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 저자가 주장하듯이 융합의 시대는 이미 왔으며 앞으로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변기관과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 속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음

○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 기반의 거버넌스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갖는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지식정보화 사회는 우선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남으로 인해 생긴 가상의 공간 (Cyber Space)을 통해 정보의 흐름이 쌍방향으로 일어나고 이는 기존의 국가와 국가간의 경계선을 허물게 하고 기관과 기관간의 칸막이 내지는 장벽을 허물게 하여 상호 의존적이며 개방적인 관계를 그 어느때 보다 더 강요하고 있는 사회임

○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거버넌스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른바 Partnership 이라는 단어가 Key Word가 될 것임

○ 정부와 민간기업, 단체, 제3섹터 영역에 속한 기관들이 서로 파트너쉽을 구축하게 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합집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

○ 특히 민간시장에서 강조하는 경쟁의 개념이 협력의 개념으로 대체되면서 이른바 Performance Partnership이 일어나게 될 것임

○ 이러한 Performance Partnership은 우선 공공부문 내에서 기관(부처)과 기관간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기존의 새로운 영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처가 별도로 생기기보다는 주무부처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과 조정기능이 강화되면서 하위목

표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어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기능중심의 부처운영에서 국가차원에서의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고 정렬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방향이 실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이러한 관점에서 융합의 시대에는 부처와 부처가 단순히 업무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이는 단순한 쪼개나누기일 뿐 협력이라고 하기 어려움) 진정한 협력을 위하여 서로의 기능을 섞고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 됨

○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것은 바로 융합의 시대를 가능케 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때문이며 지식정보화 사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지식과 정보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흘러들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융합을 유도하고 혁신을 유도하게 될 것임

○ 융합의 시대에 이제는 우수사례나 성공사례를 동종업계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 시키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

○ 이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부문간 흐름과 함께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핵심이 될 것임

○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문 즉 무형의 자산들인 지식과 정보가 시장에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며 기존의 IT 기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양질의 정보들이 부문과 부문을 넘나들게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융합의 시대에 또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의 증대임

 - 다양성의 증대는 우리사회로 하여금 과거의 틀 또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 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갈등 합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할 것임

○ 이제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보다는 소통과 공론의 장을 더 많이 열어주고 그 속에서 갈등이 표출되며 서로의 다른점을 확인하게 해 주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임

○ 이것은 이른바 Informed Consent(주지후 동의)가 중요하기 보다는 Informed Dissent(주지후 부동의)가 더 중요한 사회로 가고 있음을 의미함

○ 지식정보화 사회와 융합의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가치체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고 국가가 생각하는 목표를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민주주의적 가치체계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합의를 구하는 힘든 과정 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과 의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러한 국정운영방향과 철학이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함